

### 코리아헤럴드 음악콩쿠르 영광의 얼굴들

# '600 챌린저' 열정의 연주 경연...

## 트럼펫



**▶초등 고학년부 1위 - 송의초 김재우**  
저희 학교는 brass band가 전교생들 앞에서 자주 연주를 하는데 brass 연주 듣는 게 저에게는 참으로 즐거웠고 저도 꼭 해보고 싶은 악기였습니다. 4학년 때부터 trumpet을 배우게 되었고 지금은 송의 brass band 악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기초부터 잘 가르쳐 주시는 임시원 선생님과 송의 brass band 선생님들 그리고 항상 격려해 주시는 부모님, 많이 부족함에도 1등이라는 상을 주신 코리아헤럴드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처음 brass 연주를 들으며 느꼈던 그 즐거움과 아름다움을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trumpeter 되겠습니다.



**▶고등부 1위 - 호평고 백수경**  
부족하지만 아낌없이 가르쳐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선생님께 먼저 항상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저를 응원해 주시고 뒤에서 지켜봐 주시는 부모님께도 감사한 마음입니다. 긴장도 많이 되고 자신감도 많지 않았지만 이번 콩쿠르를 계기로 더욱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한 단계 한 단계 음악가로서 성장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악기를 잡아야겠다는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소리를 위해 연구하고 기본에 충실할 수 있도록 생각하면서 연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콩쿠르에서 느낀 많은 것들을 잃지 않고, 올바른 인성과 연주 실력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연주가가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 호른



**▶초등부 1위 - 인천원당초 고진협**  
항상 자신감이 부족한 제가 1등 수상의 좋은 결과를 통하여 수상의 기쁨과 감격을 느끼고, 더불어 자신감이 생기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함이 많은 저를 사랑과 열정으로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하여 계속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등부 1위 - 부천일신중 김수아**  
입상을 하게 되서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모두가 함께여서 재밌기만 했던 초등학교 시절과는 달리 중학생이 되면서 혼자하는 음악이 지치고 힘들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상은 '넌 잘하고 있다. 열심히 하고 있구나!'하며 칭찬과 용기를 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와 함께 성장해 나가는 저의 음악이 제 색깔로 잘 물들어 가도록 도와 주시는 선생님과 항상 제 편이신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등부 공동1위 - 대원여고 이가람**  
항상 저를 응원해주시는 가족들과 지도해 주신 최길순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코리아헤럴드 음악콩쿠르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객관적으로 연주를 평가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더 열심히 연습하고 노력해서 좋은 연주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등부 공동1위 - 무학여고 박혜린**  
부족한 저를 열심히 지도해주신 선생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짧은 시간동안 갑자기 준비하게된 콩쿠르에서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하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각오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겠습니다.

## 비올라



**▶고등부 1위 - 선화예술고 강민정**  
좋은 성적으로 입상하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소리에 대한 고민과 부담감이 많았던 월트 비올라 콘체르토로 입상하게 되어서 더욱 좋았습니다. 이번 콩쿠르는 소리와 섬세한 테크닉을 연구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항상 음악에 대한 길을 제시해주시고 나의 음악에 큰 영향을 주신 선생님과 저를 위해 항상 수고해주시고 묵묵히 믿고 기다려주시는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음악에 대해 깊이 연구하고 도전하는 성실한 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학일반부 2위 - 한양대 강운지**  
6살 때부터 오랫동안 바이올린을 하다 비올라의 소리에 매료되어 바꾸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비올라를 제대로 이해하기위해서 노력했는데 이번 콩쿠르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서 기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비올라를 하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는 김선희 선생님과 현재 큰 가르침을 주시는 위찬주 선생님. 그리고 3학년이 된 지금까지도 열성적으로 지지해 주시는 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 피아노



**▶대학일반부 대상수상자 - 서울대학교 전서영**  
항상 뒤에서 응원해주는 가족과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에게 있어서 콩쿠르란 매년 심적 부담이 큰 하나의 숙제 같은 느낌이었었는데, 이번 콩쿠르는 무대에서의 부담을 조금 내려놓고 자유롭게 음악을 표현하니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아직 음악적으로 많이 미성숙하지만 매번 겸손히 공부하는 자세로 많은 이들을 공감시키고 감동시킬 수 있는 연주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초등 고학년부 공동 1위 - 용인풍천초 박예슬**  
5살 때 입상으로 피아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번의 예선탈락으로 실패와 좌절을 겪고 있을 때 우연히 지금의 선생님을 만나 5학년인 제가 고학년부 1등은 정말 저에게겐 꿈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본선에서 연주한 Chopin Scherzo op.20 no.1은 오른손의 크레센도의 빠른 도약과 왼손 화성 진행 등은 손끝의 저림으로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럴때마다 선생님은 명언으로, Learn from yesterday. Live for today. Hope for tomorrow. The important thing is not to stop questing(과거를 돌이키며 배우고 오늘을 보며 배우고 내일에 희망을 걸고 중요한 건 항상 질문하라) 말씀해 주시면서 어린 저에게 잘 할 수 있다는 말로 칭찬을 항상 즐겁게 하라는 말로 용기를 주셔서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은 갈 길이 너무도 멀지만, 지금의 모습에 자만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는 예술이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등 고학년부 공동 1위 - 경북초 이서연**  
코리아헤럴드 음악콩쿠르에서 1위를 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늘 겸손한 자세로 성실하게 노력하여 무대에서 감동을 주는 연주가가 되고 싶습니다. 사랑과 열정으로 이끌어 주시는 김현아 선생님,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는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중등부 1위 - 선화예술학교 강관우**  
어렸을 때 학습보다 자연의 소리를 많이 듣고 자랄 수 있도록 해주신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본선 베토벤 연주를 마치고 나서는 심장이 떨릴 정도로 스스로도 만족을 느꼈었지만 기대하지 않았던 입상이어서 더욱 기쁩니다. 1위 입상한 후부터는 연습할 때도 자신감이 더 생기는 것 같습니다. 부족하지만 다양한 소리를 낼 수 있도록 애써주신 교수님의 가르침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등부 1위 - 서울예고 장다인**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부족한 저에게 항상 용기를 주시고 가장 좋은 음악의 길로 저를 이끌어 주신 어수희 선생님과 묵묵히 뒤에서 응원해주시고 기도해주시는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본선곡을 준비하면서 여러가지로 많이 지치고 힘들었지만 좋은 결과로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작품의 연주를 위해 풍성한 감성과 테크닉을 지니도록 노력할 것이며,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전하는 연주가가 되고 싶습니다.



**▶초등 저학년부 2위 - 한울초 이서윤**  
유치원 때 피아노 반주를 담당 하시던 담임 선생님의 모습에 영향을 받아 피아노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지금의 제가 있게 되었습니다. 늘 저를 위해 기도해주시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와 묵묵히 지켜 봐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부모님, 그리고 너무나도 부족한 저를 이끌어 주신다 늘 애쓰시는 원장 선생님과 선생님들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비록 1위가 아닌 2위를 하게 되어 조금 아쉽긴 하지만 더 노력하라는 뜻으로 여기고 열심히 노력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감동을 주는 참된 음악인이 되겠습니다.

## 부문별 심사위원장



이길순 관악 부문



김정현 바이올린 부문



조명희 비올라 부문



최상호 성악 부문



석유리 오보에 부문

제 7회를 맞이한 코리아헤럴드 음악콩쿠르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총 600여명이 참가하여 예원학교에서 8월 22일과 23일 예선을 진행해 본선에 진출 할 230명이 결정되었고, 8월 30일 본선에서 트럼펫 1명, 트럼본 1명, 호른 3명, 피아노 6명, 플루트 5명, 첼로 3명, 오보에 2명, 성악여자 1명, 비올라 3명, 바이올린 5명, 클라리넷 3명 등 최종 32명의 1위 수상자가 결정됐다. 특히 1위 수상자들 중 중등부 1명, 고등부 1명, 대학일반부 1명은 대상으로 선정되어 부상까지 거머쥐게 되었다.

## 플루트



**▶초등 저학년부 1위 - 금당초 김민경**  
어린시절 피아노를 통해 클래식 음악을 알고 초등학교에 가면서 1인1악기를 통해 접하게 된 플루트는 무작정 불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던 나에게 소리를 어떻게 해야 더 아름답고 멋진 연주를 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리고 더 멋진 연주가의 길로 가기 위한 발걸음이라 생각하고 오늘의 좋은 결과를 바탕으로 더욱더 노력하여 멋진 플루티스트가 되겠습니다.



**▶초등 고학년부 1위 - 금성초 최해연**  
이번 콩쿠르에는 잘하는 참가자들이 많은 것 같아 더 집중하고 연주한 것이 좋은 결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항상 훌륭히 가르쳐 주시는 송여진 선생님과 부모님께 감사드리며 아름다운 연주를 하기 위해 음악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중등부 공동 1위 - 선화예술학교 유채연**  
먼저 이렇게 큰 상을 받을 수 있게 지도해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감사드립니다. 이번 콩쿠르를 준비 하면서 연습하는 것도 힘들었는데 이렇게 큰상을 받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해서 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등부 공동 1위 - 선화예술학교 정수비**  
이번 콩쿠르에서 받게 된 1등의 영광은 저에게 있어서 너무도 값지고 소중한 것 같습니다. 플루트를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도 정말 많았는데 그 생각을 떨쳐 버릴 수 있었던 감사한 상이었습니다. 아직은 너무나 부족한 부분이 훨씬 많지만 이번 소중한 결과를 통해 부족한 점들을 채워가며 발전해 나가는 연주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를 이끌어 주시는 송여진 선생님과 부모님, 그리고 항상 저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기쁨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등부 1위 - 계원예고 김채현**  
헤럴드 음악콩쿠르에서 1등이라는 큰 상을 받게 되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입시생이라는 부담감 때문에 많이 힘들어 했었지만, 이번 콩쿠르 덕분에 다시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항상 저를 위해 애써주시는 조인영선생님과 부모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연습하여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좋은 연주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학일반부 공동 2위 - 국민대 손예림**  
대학졸업이후 제가 앞으로 뭘해야 하는지 제가 무엇을 잘해왔는지에 대한 회의감이 들어 나 스스로에게 자극을 주고자 헤럴드 콩쿠르를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입상을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이 계기로 인해서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내가 가야할 길에 대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학생 때부터 졸업이후에도 항상 열정을 가지고 저를 지도해주신 최수은 선생님, 이봉환 선생님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대학일반부 공동 2위 - 가천대 양다해**  
플루트를 전공으로 하면서 헤럴드 콩쿠르에서 꼭 상을 받고 싶었는데 이번에 상을 받게 되어서 무척 기쁩니다. 콩쿠르를 준비하는데 도움을 주신 교수님께도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번을 계기로 더욱더 열심히 연습을 해서 음악을 빛내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